

단신

평화통일 콘서트

부산시지부는 7월 12일 사하구 다송중 방송실에서 전교생에게 나라사랑 평화통일 토크콘서트를 영상으로 진행했다.

환경정화활동

제주 서귀포시지회 여성회는 7월 8일 쇠소깍 해안에서 해안정화활동을 실시했다.

부산시지부는 6월 29일 유엔기념공원에서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펼쳤다.

월례회의 개최

제주 제주시지회 여성회는 7월 7일 자유회관에서 월례회의를 갖고 주요 현안사항 등을 논의했다.

접종센터 위문품 전달

부산 연제구지회는 6월 30일 백신예방접종센터에 생수 1500병(100만 원 상당)을 전달했다.

강정숙 여성회장 취임식

부산 동래구지회 여성회는 6월 29일 부산자유회관에서 차정선 회장의 임식과 강정숙 회장의 취임식을 개최했다.

취약계층 물품 나눔

부산 영도구 동삼1동분회는 6월 29일 영도구청에 인복지관에서 장애인가구 이유식을 전달했다.

이웃돕기 성품 지원

부산 서구 서대신1동분회는 6월 25일 지역내 참전유공자들에게 후원물품을 비대면 전달했다.

부산 동래구 수민동분회는 6월 15일 관내 저소득층을 위한 물품(휴지 10세트, 20만 원 상당)을 동주민센터에 지원했다.

생신도시락 배달 봉사

부산 동구지회는 6월 17일 저소득층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팔순 생신도시락'을 배달했다.

제71주년 6·25 참전 유엔전몰용사 추모제

부산시지부, 숭고한 희생과 고귀한 정신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 가져

부산시지부(양재생)는 6월 24일 남구 유엔기념공원에서 김홍국 총재직무대행, 이성권 부산시 정책특별보좌관, 신상해 부산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71주년 6·25전쟁 참전 유엔전몰용사 추모제'를 개최했다. 1998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는 올해 행사는 기념사와 추도사에 이어, 헌화, 묵념, 진혼곡, 6·25노래 합창 순으로 진행됐다.

양재생 회장은 추모제 기념사에서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국민복 실천으로 함께 이겨내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평화통일을 위해 더욱 더 매진하는 것이 6·25전쟁 유엔전몰용사의 숭고한 뜻을 이어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웃사랑 성품 기탁

| 제주도지부 |

제주도지부(회장 김양욱)는 6월 28일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남식)와 지부 사무실에서 이웃사랑 성품 전달식을 가졌다.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지역 내 참전용사와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

한 성금 300만 원을 기탁했다. 같은 날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해 일도2동주민센터에 그린마스크 8000장을 전달했다. 김양욱 회장은 "지역발전을 위한 봉사활동을 자충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여름나기 물품 나눔

| 부산 사하구·동래구지회 |

부산 사하구 당리동분회(회장 하진태)는 6월 21일 저소득 소의계층의 시원한 여름나기 지원을 위해 선풍기 10대를 사하구청에 전달했다.

하진태 회장은 "더위에 고생하는 주민이 없었으면 하는 마

음으로 올해도 준비했다"고 말했다.

동래구 사직1동분회(회장 김원빈)는 6월 23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해 관내 보훈가족 36가구를 대상으로 선풍기를 지원했다. (사진)



평화통일 그림·시 공모전

| 제주도지부 |

제주도지부(회장 김양욱)가 운영하는 제주통일관은 통일체험프로그램 운영기간(5월 24일~6월 23일)동안 국립통일교육원에서 주최하고 제주통일관에서 주관한 '평화통일 기원 그림·시 공모전'을 개최했다. 공모전 심사 결과 우수작 18점(그림 및 시부문 각 9점)을 7월 한달간 제주통일관에서 전시하고 있다.



우수지회 방문 및 현장토론회

| 부산시지부 |

부산시지부(회장 양재생)는 7월 2일 류재호 사무처장과 16개 구·군지회 사무국장 등 20여 명이 북구지회(회장 김성호)를 방문해 6월 27일까지 개최한 북구지회의 통일전시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하고, 우수지회 수범사례 벤치마킹을 통한 사업활성화를 위해 격려와 함께 현장토론회를 가졌다.



국가유공자 위문품 전달

| 부산 금정구지회 |

부산 금정구 서3동분회(회장 박성구)는 6월 19일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제33차 보훈행사를 열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참석자들은 방역수칙을 준수한 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넋을 기리는 묵념을 거행했다.

이어 관내 국가유공자와 가족에게 소정의 위문품을 전달하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